

## 성경적 의미에서의 성화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8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th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이 구절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은 성화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칭의에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말을 **그러므로 이제 칭의 된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해석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 구절이 칭의와 관련이 있다면 이 구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말하는 4 장의 끝에 놓이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믿는 자의 칭의를 말하는, 4 장의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의 성화를 말하는 6 장과 7 장의 결론 부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6 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7 장에서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 적라라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로마서 7 :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 :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이 절규합니다.

**로마서 7 : 22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로마서 7 :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데다

로마서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그 것을 믿음으로 인해 칭의되어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 안에서 여전히 죄와의 투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하면서 절규하며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런 절규와 몸부림 속에 있던 바울 사도는 갑자기 톤이 바뀌어 7 장의 끝 25 절에서는

로마서 7: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노래로 비약합니다.

그러면서 8 장 1 절로 이어지면서,

로마서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로마서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2]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th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4 절까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절규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비약을 연결하는 다리도 없이, 어떻게 로마서 8:1-2 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는 1 절의 KJV 의 해석인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칭의된 자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말이 되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칭의된자가 성령 충만을 받아 육이 아닌 영을 따라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살 때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성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attention 을 해야 할 말이 법이라는 말입니다.

Trinity Evangelical seminary 의 교수인 Douglass Moo 는 이 법을 모세의 율법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system, order, 권세를 가르킨다고 하였습니다. 법을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면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세의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모세의 율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하는 말이 되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나를 해방하였다는 말이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system, order, 권세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이 말이 합당한 것은 우리는 죄책으로서의 사망은 면제되었지만, 죄의 권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반으로 하여 죄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신자는 예수님의 승리를 바탕으로 한 믿음위에서 옛사람의 쓰레기는 아직 치우는 중에 있다고.

죄의 권세와는 예수님의 승리를 기반으로 하여 전쟁 중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support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 보고 가십시다.

빌립보서 2 :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말입니다.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이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으로 살 때 해방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살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말은 해방이라는 말입니다.

해방은 원수를 도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그대로 있지만 원수의 흉악한 이빨과 발톱이 더이상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해방의 바른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제 36 년간의 지배 아래 있다가 1945 년 8 월 15 일에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말은 일본이 지구상에서 도말되어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본은 그대로 있지만, 일본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해방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없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일본이 다시 쳐들어 오지 못하도록 국력을 기르고 방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와 죄와의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죄가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 아래 원수의 권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탄의 세력을 짓밟으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생활 안에 있는 성화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해방의 의미입니다.

이 해방의 실상을 다음의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강가운데 큰 바위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 장애를 없애는 방법은, 그 바위를 없애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강에 물이 많아져 물이 바위를 다 덮어, 그 위를 배가 떠가도 장애는 제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새사람으로 살면, 죄, 그까짓 것 강바닥에 있어도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배를 타고 강바닥에 있는 죄의 위를 지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때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죄는 강물에 몰혀 버린 바위처럼 아무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지속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에서의 해방을 택하신 것입니다.

죄를 없애버리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에서의 해방을 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셨다면 싸움이 없습니다.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서의 해방**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을 제거하셨으면 싸움이 필요없지만, 적에게서 해방을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해방을 택하신 것입니다.

죄와 육에서 해방되길 원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새사람이 산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는것은 천년 왕국 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6 : 14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정죄함이 있다는 말이나? 하면서 로마서 8:1-2을 K.J.V. 을 따라 해석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하면서 쓰레기 통에 던져 버립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칭의된자가 계속 죄를 지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칭의된 자도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데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칭의되었다고 금방 성자가 되어 죄를 짓고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육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칭의의 회복이 아닌 교제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성화의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1-2은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된 사람이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성화를 말하는 것이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칭의 된자가 일시적 타락이 아니라 지속적 타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보충적으로 공부를 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지속적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와 구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성화의 양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누히 공부를 했음으로 오늘은 생략하고, 칭의된 자가 지속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로 칭의된 자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타락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 예정을 입어 유효적 소명에 의해 믿음으로 칭의되어 그 안에 영생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지속적 타락의 상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미국 여자에게 전도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신 종교가 무엇이나 물으면 거의 전부가 기독교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당신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그럼요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 중생했습니까? 영생을 받았습니까? 하면 아무 대답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미국 여자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녀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거 하지만, 교회도 만나갈 뿐 아니라 신앙 생활은 전혀 안하고 있어 칭의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올바른 칭의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칭의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칭의로 이끄는 믿음은 그 사람의 전일생애에 변화를 미칩니다. 이런 칭의가 우리가 말하는 칭의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에 행위가 반드시 따라 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이 끝까지 견인하여서 결국은 천국까지 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믿어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로마서 8:1-2 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실제적 동기가 무엇인가 공부를 해 보십시오.

로마서 8:1-2 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실제적 동기가 되는 두 motive 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새사람으로사는 자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인해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해방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로마서 8:1-2 의 바른 주석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옛사람의 죽음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 장에서는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고린도 전서 15 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5 :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6 장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멀쩡히 살아 있는데 도 사도 바울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고전 15 장에서는 또 날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옛사람을 죽음에 던지우는 싸움을 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으나, 옛사람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가 너무 강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에서도 지지를 받습니다.

골로새서 3 :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 : 2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 :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안에 감취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 :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 :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 : 6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 :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골로새서 3 :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서 3 :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골로새서 3 :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바울은 골로새서 3:3 에서는 너희가(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고 합니다.

골로새서 3 :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안에 감취었음이니라

그런데 5 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 명령합니다.

또 8 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9 절에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옛사람과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해 이미 끝났으니,

이제는 그 믿음으로 옛사람의 쓰레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우고 새사람으로 살라 이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3 :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는, 옛사람은 죽었으니, 성령 충만을 받아 새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지지받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 보십시오.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5 :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런데 신학자들은 죄가 완전히 도말된 sinless perfect sanctification 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하셔서 사탄을 완전히 불못에 던져 넣을 때까지 죄와의 싸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새사람으로 산다는 믿음입니다. 새사람으로 살 때 만이 육에서 해방된, 죄에서 자유케 된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되는 새사람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And be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And that ye put on the new man, which after God is created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Created : ktizo**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를 위해 제조하였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 아들의 형상을 따라 제조한 새사람 이라는 뜻)

우리는 성화의 주체는 성령의 인도하에 우리의 새사람이라는 것을 기초부터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 오십니다.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가지고 들어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은 같습니다.

중보자로서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인격을 둘째 사람의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 오신 이 둘째 사람의 인격을 인격을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새사람이 영어로는 New Person 이라는 말인데, 새인격 이란 말입니다. 이 새 인격을 가진 새 사람은 성령님의 인격과 똑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인격이랑 똑 같습니다.

여기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지칭할 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찾아 보고 가십시오.

고린도전서 15 : 45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 :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둘째 사람은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인격이 아닙니다. 하늘의 인격입니다.

하늘의 인격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반응합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배합니다.

로마서 8 :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 :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로마서 8 :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담대히 살아 갑니다.

또 새사람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살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 :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라디아서 5 :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새사람으로 사는 삶이,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사는 삶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요,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화의 삶은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로마서 8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속적 성령충만의 삶을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 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서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

---